

벌써부터 총학후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과열 우려

공식선거 기간 외엔 총학 후보 정책 설명 등 홍보 불가

총대의원회 “선거 과열 양상보여 SNS 선거운동 막겠다”

학생회 선거가 2달여 앞둔 가운데 예비후보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학생회 선거는 매년 11월 중순에 열린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고 선거제칙 제36조(선거운동의 기간)에 명시돼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출마의 의사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전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예도 불구하고 학생자치기구 입후보

자들이 버젓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총학생회 하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에서는 예비 총학생회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였다. 입후보가 예상되는 3개팀이 자신의 슬로건과 출마동기, 포부, 공약 등을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홍보했다. 또한 일부 후보들은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후보 이름, 슬로건, 학과 등 선거 관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조기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각 예비후보들은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출마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는데도 선거를 관장하는 총대위원회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높다.
선거제칙 3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인문대학의 모 학과 대표는 “사전 선거 운동은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과

열되게 하는 측면이 많다”며 “사전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 총대위원회가 후보자들에 경고하는 방식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대의원회는 세척으로 정한 SNS 관련 조항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신상우 총대의원회 부의장은 “SNS에 학생들이 선거와 관련해 간단한 인사 정도는 자유롭게 글을 올리도록 허용했었는데 벌써부터 과열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주 총대의원회 총회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SNS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막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지난 3일부터 대학 직원들이 대학본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시위하고 있다.

‘기성회 수당폐지 관련’ 직원들 거센 반발

해결까지 무기한 농성
“기성회계 정당성 부정”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위)를 중심으로 대학 직원들이 기성회수당지급 폐지와 관련해 지난 3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공동위는 교육부가 기성회계 수당지급 폐지 문제에 대해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성

회계에서 지급돼온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성회이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편성돼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런 체계를 부정하고 기성회계가 부당집행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에 열린 국공립대 총장 회의에서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에 대해 학생 등록금 부담 가중과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위배 등

을 지적하면서 국립대 직원 기성회비 수당 지급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9월부터 기성회비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를 9월부터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공동위는 이번 문제를 전국대학노동조합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 △비국립고교계관리규정 개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총여·해양대 감사 ‘최다’ 지적... 중앙자치기구 총회 열려

사과대 중강당서 4일 하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
총학생회는 정산서 공문 누락으로 경고 받아

중앙자치기구 하반기 운영위원회가 4일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5일 총대의원회, 9일 총여학생회 순으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좋은일만’ 총학생회 하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는 제적 101명 중 91명이 참석해 90.1%의 참석률을 보였다. 위원회는 △학생 후생복지자금 집행내역 △학생 행사 보조경비 집행내역 △총은일만 총학생회 상반기 사업평가서 및 결산내역 △총은일만 총학생회 공약이행사항 △총은일만 총학생회 하반기 사업일정 및 하반기 예산안 △기타 안전의 순서로 진행했다.
먼저 학생 후생복지자금(중앙자치기구 1년 예산) 총 570,689,000원 중 535,547,900원이 집행됐다. 미집행 금액은 차후 학기 중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방안을 학교측과 협의한다고 총학측은 밝혔다.
이어 총학생회는 하반기 예산안 24,500,000원을 인준 받고 기타 안전으로 총장과의 공개질의서 요약본을 발표하며 회의를 마쳤다.
유병선 총학생회장은 “이번 총운영위원회를 통해 상반기에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



지난 4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정기총운영위원회가 열렸다.

경고를 받았으며 경성대학이 경고 1회로 가장 적은 경고를 받았다.
9일자 시행된 하반기 확대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의 기존 사업 포함 13개 공약 이행사항을 발표했다.

수시 경쟁률 4.4대1 기록

수의예과 일반학생전형 26.9 대 1로 최고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798명 모집에 3539명이 지원해 평균 4.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학관리과(과장 김석진)에 따르면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수의예과 일반학생전형으로 8

이외에 청춘결고 총여학생회의 ‘Thanks Giving Day’(아라여성 축제)를 포함한 9~12월 하반기 예산안 16,940,000원을 인준받았다.
강수빈 기자

아라체전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축구 등 10개 종목 단과대학별 겨루

2013학년도 아라체전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25일에는 종목별 예선전과 8강전이 진행된다. 26일에는 종목별 4강전과 결승전이 열린다.
대운운동장에서는 축구, 배야구, 씨

름, 단체줄넘기, 계주, 승부차기, 줄다리기 등이 진행된다. 또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가, 한라터에서는 족구와 여자피구가 열린다.
문의=총학생회(전화 754-2360, 2361)

모의토익 오는 26일
접수는 17일까지

2013년 제4회 모의토익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된다.
모의토익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외국어교육원 3층 행정실에서 받으며 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응시료는 5000원이다. 단, 2013년 제3차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자 중 출석률 90% 이상인 자는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정규토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학과에서는 모의토익 점수도 장학금 혜택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외국어교육원 행정실(전화 754-2291~2292)

2014학년도 1학기 파견 국제 교류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으로 파견할 교류수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류대학별 선발인원, 학비납부 및 대학별 지원 자격(교류수학생)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일본	고베대학 神戸大学	2	제주대 납부	해양과학대학 2학기 수료한 학생, 평균평점 3.25 이상, JLPT N2
	나가사키대학 長崎大学	2	〃	JLPT N2
	가고시마대학 鹿児島大学	1	〃	JLPT N2, 자연계수업 수강시 TOEIC 680이상
	동경학예대학 東京学芸大学	2	〃	JLPT N2
	홋카이도대학 北海道大学	2	〃	JLPT N2, 해양과학대학 3학년 이상 파견 가능
	메이로대학 目白大学	3	〃	〃
	메이오대학 名桜大学	1	〃	JLPT N2, 2학년이상 파견 가능
	소카대학 創価大学	2	〃	JLPT N1, 수학기간 1년, 가족사비 면제
	아마가타대학 山形大学	4	〃	JLPT N2
	사가대학 佐賀大学	3	〃	JLPT N2, 3학년이상 파견 가능
	메이지대학 明治大学	2	〃	JLPT N2
	류큐대학 琉球大学	3	〃	JLPT N2
홍콩	영남대학 嶺南大学	1	〃	IBT80, 수학기간 6개월, 가족사비 면제
	국립성공대학 國立成功大学	2	〃	HSK 5급 이상, IBT 700이상
대만	국립중앙대학 國立中央大学	5	〃	〃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중국	동북대학 东北大学	2	제주대 납부	학부수업 수강시 HSK 5급 이상
	삼협대학 三峡大学	5	〃	〃
	상당대학 湘潭大学	3	〃	HSK 3급(240)이상
	허북대학 河北大学	5	〃	〃
	천진재경대학 天津财经大学	5	〃	경상대 학생만 지원가능
	동연정보대학 东软信息学院	2	〃	컴퓨터공학과 HSK 4급, 경영학과 HSK 6급 이상
	연변대학 延边大学	2	〃	수학기간 1년, HSK 6급이상 전공 과목 수업 가능
	천진외국어대학 天津外国语学院	5	〃	HSK 3급(240)이상
	허베이공과대학 河北理工大学	5	〃	〃
	호남사범대학 湖南师范大学	3	〃	학부수업 수강시 HSK 5급 이상
	연변과학기술대 延边科技大学	3	〃	수학기간 6개월, 가족사비 면제
	산둥대학 (위해캠퍼스) 山东大学(威海分校)	5	〃	〃
	대련 민족대학 大连民族学院	2	〃	〃
	절강월주외국어대학 浙江越秀外国语学院	2	〃	〃
	목단강사범대 牡丹江师范学院	2	〃	〃
몽골	해남대 海南大学	2	〃	학부수업 수강시 HSK 4급 이상
	장안대 长安大学	2	〃	〃
	광둥외국어무역대 广东外语外贸大学	2	〃	〃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11	제주대 납부	인문대(1명), 경제, 법학(각 5명) 학부 수업시 IBT 79, IELTS 6.0 이상
	호치민국립대 국제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2	〃	생명공학, 전자공학, 식품공학, 경영학 과학부 수업시 IBT 79 (각 과목당 19점 이상)
	외국어정보대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	IELTS 4.5
독일	로렌하임 응용과학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Rosenheim	4	〃	산업디자인학부 학생만 지원가능
러시아	국립동방대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2	〃	〃
	태평양국립대학 Pacific National University	2	〃	러시아어 중급 이상
	네브래스카대학 University of Nebraska-Kearney	10	양교 납부	IBT 61, IELTS 5.5
미국	델라웨어주립대학 Delaware State University	10	양교 납부	수학기간 6개월, 아메리칸 컬처 프로그램, 성적 미소지자 가능
	리처드 스톡턴컬리지 Richard Stockton College	2	제주대 납부	IBT 80, IELTS 6.5, 수학기간 1년
	안젤로주립대 Angelo State University	1	〃	IBT 79, IELTS 6.5
캐나다	조지브라운컬리지 George Brown College	2	〃	관광경영학만 지원가능 IBT 79(전문학사), IBT 91(학부과정)
	호화프로그렘 IBT 76(스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각 과목별 5.5 이상)	2	〃	Study Abroad 프로그램 IBT 78(스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 (각 과목별 5.5 이상) 수학기간 6개월
호주	선샤인코스트대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10	양교 납부	IBT 78(스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 (각 과목별 5.5 이상) 수학기간 6개월
	몽골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3	제주대 납부	〃
몽골	몽골국제대학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2	〃	TOEIC 8000이상
칠레	오스트랄대학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4	〃	IBT 80 또는 스페인어 가능자
멕시코	히달고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the State of Hidalgo	8	〃	DELE B1 또는 스페인어 중급 이상
계		173		

2. 복수학위생 지원자격

국가	대 학 명	선발인원	학비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5명 이내	제주대 납부	HSK 5급 이상, 수학기간 2년
	천진재경대학	5명 이내	〃	경상대학생만 지원가능, HSK 5급 이상, 수학기간 2년
일본	메지로대학	1명	〃	JLPT N1 이상, 수학기간 2년

3. 제출서류 (모든 서류 마감일까지 학과제출)

가. 교류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 대학 수감신청원(소정양식) 1부
다. 지원시점 직전까지 성적까지 나온 성적표 1부
라. 공인어학성적증명서 1부

4. 파견 권역별 장학금 지원

: 해외자매대학 파견 교류수학생에게 권역별 파견국가에 따라 파견장학금을 지급함

권역별	대학소재국가	지원금액(천원/학기) 1학기	2학기	비 고
동아시아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러시아(극동), 몽골, 베트남	1,000	600	수학대학 학비 면제
	필리핀 (GNE 프로그램)	3,000		학비 양교납부
대양주	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2,000	1,200	수학대학 학비 면제
	미국	5,000	4,000	학비 양교납부인 경우

5. 교류수학생 선발

가. 선발공고 : 2013. 9. 3.(화)
나. 신청마감 : 2013. 9. 12.(목)(국제교류본부 공문 및 서류마감일)
다. 대상자 확정 : 2013. 9. 16.(월)
※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제주대소식 참고

6. 문의사항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754-2198, e-mail : intl1@jejunu.ac.kr

사설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기대하며

우리 대학이 2013년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되었다. GTU 지원사업은 국제화·다문화 등 국내 교육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른 교원의 글로벌화 요구와, 선진국·개도국 등의 한국 교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준비한 우리 대학은 이번에도 좋은 결실을 맺었다.

제주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원양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소통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해야 한다. GTU 지원사업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의사 결정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가 특히 그러하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발, 각종 규정 정비, 강좌 개설 등이 짧은 시간 내에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간의 소통 채널 가동은 물론이고, 두 단과 대학과 교육대학원 간의 소통 채널도 활발하게 가동해야 한다.

다음으로, GTU 지원사업은 우리 대학의 전체 예비 교사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산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 사업은 수학·과학 교과 복수 학위 운영 및 해외교원 자격증 취득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경우, 해당 학과나 전공 또는 선발된 학생들만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1차년도 5명, 2차년도 15명, 3차년도 25명, 4차년도 20명 정도가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선발될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GTU 지원사업단에서는 재학 중인 나머지 예비 교사들을 위한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그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제주에 근무하는 초·중등 교원의 글로벌 마인드 확산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주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원 양성은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의 공동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원 양성 기관 간의 소통 체계를 확고히 하고, 우리 대학에 글로벌 마인드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초·중등 교사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또한 기대한다. 이것이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의 진정한 성공 결과가 아닐까 한다.

딸들이 살아가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2002년 5월,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주최하기로 되어 있던 ‘콘돔서약식’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학생들에 의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콘돔서약식’은 당시 유행하던 ‘순결서약식’을 패러디한 것으로, 순결보다 중요한 몸과 생명에 대해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콘돔서약식’이 열릴 장소가 2000명에 가까운 기계공학부 남학생들이 다니는 기계관 앞이라는 것이 논란의 이유였다.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장이 “성폭력 2차 가해자 됐다.”는 논란 끝에 사퇴한 일이 있다. 서울대생 A(21)씨가 자신의 남자 친구 B(21)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하였지만, 학생회장이 B씨의 행동을 성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논란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이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자신을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는 마땅히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9월, 제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가 학생을 강제 성추행한 K교수에 대한 자진사퇴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 K교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고, 5월에 법원에 기소되었으나, 7월에 해당 교수가 사과문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피해학생이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감봉’이라는 경징계가 이루어지자, 중앙운영위원

회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K교수가 질병휴직을 함으로써 논란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2002년과 2012년의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호사가들은 “이제는 여성가득부가 아니라 남성가득부가 필요할 지경”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2013년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2차 성폭력 가해자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피해학생이 <건강증진센터>에 최초 신고했을 당시부터 학교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내내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이 교내 게시판에 K교수의 사과문을 직접 게시하게 했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기에 청춘걸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총여학생회에서 ‘아라여성축제’를 성대히 개최한다고 들었다. 정적 공모전과 청춘과의 소통, 미니 성 박물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는 점이 대견하고 기특하여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 <건강증진센터> 규정에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던 총여학생회장이 지금은 빠져 있다는 점 등도 논의되면 좋겠다. 학내의 이런 점들부터 개선해나갈 때 우리의 딸들이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대학, 전문강사제 도입 움직임에 강력 반발

교육청서 1인 시위 벌여

“비정규직 교사 양산”

교육대학 학생들이 융합과학교육 전문강사(이하 과전강)를 도입해 전문강사제를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6월 12일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과학교육에 대한 개선과 실험, 탐구중심의 과학 교육’을 위해 융합과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전문강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대학 학생회와 각 전공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과전강 도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27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학생총회가 지난 4일 교육대학에서 개최됐다. 또 전공별 소모임에서 학생들 간의 토론을



교육대학 학생이 지난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해 대응방안을 구상중이다.

전국 교육대학은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비교사 총결기’ 대회를 통해 전문강사제 확대에 대해 투쟁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은 지리상

의 이유로 탐동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대학 구성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어전문강사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융합과학교육전문강사(과전강)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대학의 한 교수는 “초등학생 시기에 아동의 중요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교사가 초등학생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전문강사제는 초등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어전문강사 중 2.6%만이 초등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과전강 도입은 전문강사제 문제를 심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학생은 “1년 단위로 강사가 학교와 계약을 하는 전문강사제는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한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이 비정규직 교사 수의 증가로 단기간 취업률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서예린 기자

산업체 현장실습 수기 공모전 이동민씨 대상

LINC사업단 주최

“제주기업에도 희망 있다”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 교수)은 3일 총장실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선 이동민(전기공학과 3)씨가 대상을 받는 등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0명이 입상했다.

이동민씨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기업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현장실습이 확대돼 다른 학생들도 참여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LINC사업단 산업체 현장실습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했다.

허항진 총장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배운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실무를 배움으로 학생의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상백 LINC사업단장은 “실습기간에 고생했던 일들은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제주씨그랜트센터, 해양산업 발전방향 연구 등 협력

제주씨그랜트센터(센터장 이병길)는 3일 센터 회의실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지사(지사장 진홍제)와 ‘제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사업 △해양환경의 진단과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사업 △기후변화에 대

응한 해양산업 발전 방향 연구 △친환경복원을 위한 해양환경 변화 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연구 개발을 위한 자원공동 활용 및 공동연구 추진 △지식 정보의 상호교환과 심포지엄 및 세미나 공동개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공동 활용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국내 주요 29개 무역항에 해상 쓰레기를 청소하고 오염 사고가 발생시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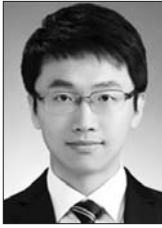
제주대학교병원장에
강성하 원장 재임

강성하(진단영상의학과) 교수가 제주대학교병원 제5대 병원장으로 재임됐다. 강성하 신임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임기는 4일부터 2016년 9월3일까지 3년이다.



오홍윤 동문
48회 공인회계사 합격

오홍윤(회계학과 2013년 졸업)씨가 제48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오씨는 1차 객관식 필기시험을 통과, 2차 주관식 시험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했다.



육상부 4개 메달 수상

이수정·강민정·유미진 학생

육상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전남 목포시 유달경기장에서 열린 ‘2013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겸 제9회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 은 1, 동 2 등 4개의 메달을 따냈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수정(체육학부 3) 포환던지기 4m70 금메달 대회 최우수선수 ▲강민정() 해머던지기 16m45 은메달 ▲유미진(1) 원반던지기(40m52) 해머던지기(12m64) 동메달

중국어말하기 대회

지난 5일 중어중문학과서 개최

중어중문학과(학과장 조성식)가 5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제18회 전도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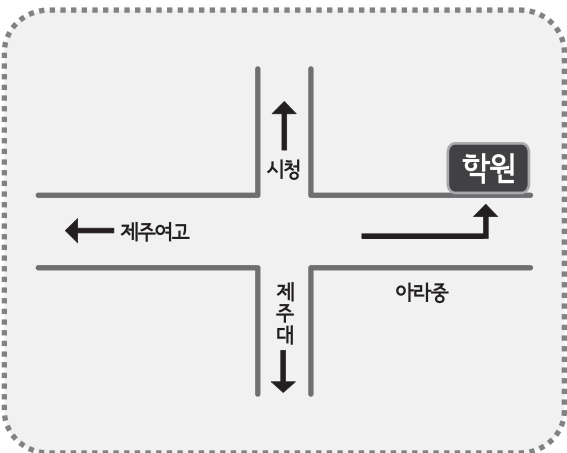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장나운(노형초6)·박용준(제주중1)·김은빈(중앙여고3) ▲우수상=양우석(남광초3)·강도희(제주여중3)·김재성(중앙고2), 장려상은 정서원(서귀포초6)·이나연(신성여중3)·윤예솔(제주고3)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4회 영어말하기 대회

신문방송사 영자신문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3년 9월 27일(금) 오후 4시
- 장 소 : 사회과학대학 강강당
- 참가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신청기간 : 2013년 9월 2일(월) ~ 9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마감 : 9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press@jejunu.ac.kr
 - 방문접수 및 문의 : 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신문방송사 (754-2278, C.P : 010-5034-7405)
- 경연방법 : 영어말하기 (각 3~4분 내외)
- 시상내용
 - 대상 1명, 상금 : 50만원
 - 우수상 1명, 상금 : 30만원
 - 장려상 2명, 상금 : 각 10만원

신문방송사 영자신문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사라캠퍼스 학생회관 동아리방 강제 규제에 불만

교학처 “학생자치 공간 입구 유리 막지 말라”

학생들 “자치기구 아닌 당국 관리는 부적절”

사라캠퍼스 동아리방 규제가 심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동아리방마다 부착된 ‘사라캠퍼스 동아리방 운영 안내’에 따르면 “동아리방 체크 리스트에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을 경우 동아리 방을 폐쇄한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교학처 관계자가 통보 없이 진행되는 동아리방 불시검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봉주(사라캠퍼스 IVF 회장) 씨는 “동아리방을 깨끗하게 쓰길 원한다면 불시검문을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아라캠퍼스는 정기적으로 동아리연합회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경고한다. 동아리방 체크 리스트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체크 리스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아리방 입구 문 유리 봉쇄 여부’이다. 이에 대해 오소정(동아리 ‘나래’ 회장)씨는 “입구 문 유리를 막지 말라 하는데 방도 학생자치 공간이고 외부인이 방 내부를 보는 것이 불쾌하다”며 “이를 허용해 동아리의 자체적인 운영을 보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라캠퍼스 동아리 내의 불만사항을 개선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라캠퍼스 동아리연합

회 회칙의 경우 기존의 회칙을 그대로 쓰지만, 기준안 및 세칙의 경우 동아리 내의 불편 사항이 있을 때마다 동아리연합회 내의 운영위 회의를 거쳐서 개정한다. 하지만 사라캠퍼스는 학생회 지침이 아닌 학교당국인 교학처에 의해 불만사항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학처 관계자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교학처 관계자는 “동아리 방 규제 사항은 매년 3월에 정하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다”면서 “학생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주희 기자



교학처에서 동아리방 앞 입구유리를 막지 못하게 해 과도한 학생자치공간 침해 아나니는 지적이 일고있다.

‘제주학의 미래와 연구소 역할’ 세미나 열려

탐라문화연구소 지난 6일 개최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석준 교수)는 지난 6일 국제교류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주학의 미래와 대학 연구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동진(사학과) 교수, 강봉룡(목포대) 교수, 박경훈(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김동윤(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동철(부산대) 교수, 강문규(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허남춘(국어국문학과) 교수, 문순덕(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강인창(KBS제주방송총국) 편성부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강봉룡 교수는 ‘지역학 연구와 대학 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전국의 섬을 연구하면서 중점연구소와



지난 6일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제주학의 미래와 대학 연구소의 역할 학술세미나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인문한국 선정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탐라문화연구소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가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소장은 ‘지역학으로서의 제주학’을 위한 탐라문화연구소와 지역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지역 정체성과 자치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탐라문화연구소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국가프로젝트 등의 사업추진 시 지역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홍콩교육대·홍콩국제학교와 협약

교육활동 공동 지원 약속
미국 등 외국대학과도 추진

제주대가 홍콩교육대(총장 스태픈 중·사진), 홍콩한국국제학교(교장 서재철)와 교육·연구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스콜로보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프로그램(GTU, Global Teachers’ Uni-

versity) 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 연구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공동 세미나·워크숍 및 기타 교육 활동 추진 △현장 실습을 비롯한 학생의 교육활동 공동 지원 등을 추진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위해 김익상 부총장 등 제주대 관계자가 중국 홍콩을 방문했다. 제주대는 이번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GTU 지원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



해 미국 등 다른 외국대학과의 교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이 잊은 배움의 길’ 33년 만에 박사학위

김남식 유성건설 대표이사
제주대 기성회장도 역임

“공부에 대한 33년의 열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공부하면서 행복했습니다.” 50대 후반을 넘긴 나이에 토목해양공학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남식(56, 유성건설 대표이사) 동문은 20대 시절 자신이 세웠던 다짐을 떠올리며 입을 뗐다. 김씨는 지난 2002년 토목환경공학과에 편입해 만학도의 길을 걸었다. 그는 앞서 26살의 늦은 나이에 전문대에 입학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은 컸지만 그런 여건이 안돼 책을 잠시 놓아두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다시 공부하겠다는 다짐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니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어린시절 누군가 중장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주위에서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23살부터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박사의 꿈을 이룬지 3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김씨는 일찍 대학에 진학하려 했지만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40대 중반의 나

이인 2006년 제주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에 그리던 학사모를 쓰게 됐다. 이어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게 됐다.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의 최고봉에 오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공부에 이어왔다. 김씨는 힘들었던 가정형편으로 어린시절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고단했던 어린시절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열세 살 즈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삼나무를 심었습니다. 방풍림을 만들기 위해서요 45년전 월급 120원을 받으며 일을 했어요, 요즘 학생들은 힘들었던 그때를 이해하기 힘들죠.” 고단한 유년시절을 보낸 김씨는 어릴 때부터 장사를 많이 했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수박, 밀감, 배추, 생선 등등 안해본 장사가 없다. 하루에 많은 돈을 벌었다. 1984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건설회사에 다니며 직장생활을 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한 달에 15만원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장사할때는 하루에 20만원도 벌었어요. 하루에 장사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한달 봉급으로 받고 다 냈으니 주변에선 의아하게 생각했죠. 대학을 졸업하고나면 내 전공을



김남식씨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살려서 가야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씨에게는 세가지 꿈이 있었다. ‘여건과 기회가 되면 못다한 공부를 하고 싶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싶다.’이다. 김씨는 대학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지금까지 번 돈을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 싶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대학 기성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금은 총동창회 부회장, 장학재단 이사 등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봉사활동단체를 통해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기부했다. 김명지 기자

행정대학원, 와세대 대학과 교류 세미나

행정대학원(원장 강근형)이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대학원(원장 다나카 다카히코)과 지난 4일 제주대에서 ‘제 9차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교류 심포지엄에선 와세다대 가나가 다카히코 교수가 ‘국제정세 대변혁기의 일본 외교정책’, 강근형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한일관계’에 대해 논문을 발표했다. 토론과 질의에는 제주대 오승은 교수와 츠카모토 와세다대 교수가 참여했다. 제주대 행정대학원과 와세다대 정치대학원은 양 대학원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기 위해 지난 20008년 5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학술교류 행사는 매년 1회씩 제주대와 와세다대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제주대학교 영상제 김태규씨 대상

5일 아라뮤즈홀서 열려

신문방송사 교육방송(편성국장 강성준)이 주최한 제11회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5일 오후 5시 30분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규(서강대)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JEBS 영상제에서 제주대학교 영상제로 명칭이 변경된 이번 영상제는 ‘처음’을 주제로 한 10분 이내의 자유 영상물의 공모전이 진행됐다. 이번 영상제는 6팀의 영상 경연 본선 진출팀 중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1팀씩 시상했다. 특히 출품 수상자에게는 각각 70만원, 40만원, 30만원의 상금과 총장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출사’-김태규(서강대) 작 ▲최우수상 ‘세도우 복상’-변서인(공주대) 작 ▲우수상 ‘바람이 불



지난 5일 열린 제주대학교 영상제에서 김태규(서강대)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어오는 곳’-제주대 영상동아리 프레임 작

알립니다
다음주 신문은 추석 연휴로 인해 쉽니다. 오는 25일 900호(특집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제7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글날을 기념하여 “제7회 전도 외국인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친선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3년 10월 9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

▶ 참가 신청

- 참가자격 : 제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
- 신청기간 : 2013년 9월 4일(수) ~ 9월 30일(월)
- 접수 장소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인문대학 1호관 2층 ☎ 754-2712)
- 시상 내용 대상 1명, 상금 : 30만원 상당 상품
금상 일반부 1명, 학생부 1명 상금 : 20만원 상당의 상품
은상 일반부 2명, 학생부 2명 상금 : 15만원 상당의 상품
동상 일반부 3명, 학생부 3명 상금 : 10만원 상당의 상품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청춘 20대, 꿈을 쫓아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청춘을 가장 멋있게 불사르는 방법”

제 주 대 신 문 입 사 해 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3학년 학생
원시마감 : 9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u.ac.kr)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출력 후 작성 편집국에 방문해 직접 제출
기타서류 :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지원 동기 등 기술) 1부 제출

장 소 : 취업센터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
문 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754-2271~9)

제주대신문동우회

제11회 제주지성과의 대화

대학 위기 넘어 ‘글로벌 인재육성 대학’ 완성

‘가고 싶은, 작지만 강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만들기

허항진 총장 강연 요지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한 결과 2010년 564명이었던 전임교원수가 현재 607명에, 교원 확보율은 95%에 이르고 있다. 재정규모는 취임초보다 102억원 많은 2245억7500만원에 달하며, 발전기금 조성 금액은 2010년 586억원에서 2013년 915억원으로 곧 1000억 돌파가 기대된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는 학생취업률은 임기초 48.9%에서 올해 52.8%를 이뤄냈다. 이는 전국 거점 국립대 2위로, 전체 국립대학에서는 6위라는 성과다. 이처럼 취업률이 향상된 것은 직업능력개발원을 취업전략본부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체계적인 취업지도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 LINC(산학협력혁신도대학) 사업단과의 취업 연계형 산업체 현장실습 확대, 단과대학별 취업 지원관제도에 따른 개별 맞춤식 취업 컨설팅, 국내·해외 인턴십 운영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봤다. 앞으로도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지표상으로 27개 국립대학 가운데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5위, 전임교원학보율 5위, 발전기금 모금액 5위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비결에는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이라는 비전에 맞춘 10대 중점 실천과제

의 충실한 이행에 있었다.

최근 3년간 대학의 사명인 교육인재 양성 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학부 인력양성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했다. 교양 및 학생진로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했고, 기초교육원, 간호대학·예술디자인대학 신설을 통해 학문간 융합에 앞장섰다. 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과 인력충원은 물론 외국어능력 향상프로그램 마련, 해외자매대학과의 단기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국제화 교육에 노력했다.

지난 2011년 제주대학교 기관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 주요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 94%가 합격해 거점 국립대 1위, 전국 8위에 올랐고, 수의사 국가고시 100%, 간호사 국가고시 평균 98.6% 합격, 사법시험(1명), 행정고시(2명), 공인회계사(8명), 세무사(2명)에 합격했다. 올해에는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사업 유치를 통해 4년간 16억7천만원의 사업비와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돼 정부 지원금 196억6천만원을 받는다. 또한 BK21플러스 사업에 2개 사업단, 4개 사업팀이 선정돼 7년간 100억8천만원을 지원받으며, 2011년 BK21사업 전국 단위 평가 1위, 지역단위 평가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성과를 통해 국내 20위 대학으로의 도약은 물론 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대학을 만들겠다.

제주대신문동우회(회장 김동주 KBS국장)는 ‘아라춘추’ 출판기념회를 겸해 9일 오후 제주시 더 호텔에서 ‘제11회 제주지성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허항진 총장이 ‘새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과 제주대학교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강연한데 이어 7시 40분부터 ‘아라춘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기념회에서는 이문교(제주언론인클럽 회장) 고문이 동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환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김항원 명예교수, 이창익(일어일본학과) 교수, 고호성(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역대 주간교수들도 참석했다.



9일 오후 제주지성과의 대화에서 허항진 총장이 ‘새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과 제주대학교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은 행사 후의 기념 촬영.

하지만 이러한 외부성과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인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맞춰 대학 체질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않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유치가 가열되고, 지역 내 독점적 위치에 따른 경쟁의식 부족으로 대학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대학 존립을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의 일회적, 단절적 재정지원으로 대학 구조개혁과 체질변화에 한계가 있다.

우선 제주대를 ‘가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교육·연구 및 재정, 교육여건 대한 21개 핵심지표를 설정해 상위 20위권 대학 진입을 위한 핵심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국립대학 상위 10% 수준에 이르는 학생 장학금 확충을 위해 외부 장학금유치와 각종 국책사

업에 대한 유치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한다.

또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대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 개편과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강화 등 대학 내부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학운영의 거버넌스 체제를 잘 유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전력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만들기이다. 지역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 문화·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적극 앞장서고,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평생교육 공동 추진에 나서며 현장밀착형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트랙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학신문 60년 주역들 ‘아라춘추’ 출간
기획특집·논단·칼럼·회고담 등 수록

제주대신문동우회(회장 김동주·KBS국장)가 동우회지인 ‘아라춘추’를 펴냈다.

이 책은 ‘제주대학교 61년과 제주대신문’, ‘제주대신문, 그 뒤안길’을 기획특집으로 다루면서 제주대신문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대학신문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특집에는 ‘제주대신문 머리기사로 보는 제주대학교의 발전’, ‘새 제호, 새 디자인, 새 활자체 편집 대학신’, ‘감춰두었던 기자들의 일지’ 등이 실렸다.

또 이문교(제주언론인클럽 회장) 회원의 ‘제주 4·19 혁명과 4·3 진상규명운동’ 등 60년대의 제주학생운동을 집중 조명하는 코너도 마련했으며, ‘제주 언론의 초석을 놓은 논객 고영일’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고광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선생님의기가 살아야 학교가 산다’, 고영철 언론홍보학과 교수의 ‘제주, 세계 7대 경관선정 캠페인 보도실태와 향후 PR 방안’, 김범훈 교육과 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제주 글로벌 지오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김경호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장의 ‘청년취업, 인재주의와 도전정신’ 등이 실렸다.

또한 김계춘 한라일보 논설실장의 ‘제주해군기지, 계획에서 구럼비 발파까지’,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문학으로 만나는 4·3’,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의 ‘맥주한의 사상과 연구 활동’을 비롯해 홍성추(전 서울신문 이사) 회원의 32년 기자생활을 정리한 ‘나의 인생, 나의 언론’ 등의 회원칼럼도 수록됐다. 이 밖에도 학생기자 시절의 추억을 담은 고유봉 제주대 명예교수의 ‘대학신문 편집국장’, 김동주 KBS국장의 ‘교



련 대리출석이 무기정학?', 변성구 한림고 교사의 ‘신문에 얹힌 단상’, 안창흠 제주시대 편집국장의 ‘무너진 봄 잎 오키리는 몸부림’, 김건일 지역MBC 전략지원단장의 ‘총장의 기사 검열(?)’, 고성식 연합뉴스 기자의 ‘진짜와 가짜 사이’ 등이 실렸다. 부록에는 제주대신문 동우회 연혁, 제주지성 초청간담회 운영결과, 임원 현황 및 역대 발행인과 주간, 학생편집책임자, 회원명단과 아라춘추 발간일지가 수록됐다.

주간교수를 지냈던 고호성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서평에서 “이 책에는 1976년 동우회 창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주대신문동우회가 걸어온 생생·발전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다”면서 “동우회원들이 학창시절 학보사 기자로서 겪은 이 크고 작은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대학 문화와 시대상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대신문 졸업 동문들의 모임인 동우회는 지난 1976년 12월 발족돼 그동안 모교 발전 사업과 대학신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회보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회원은 120여명에 이르며, 언론계 및 경제계, 학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 돼라

제주도 개발과 환경보존, 우리의 자세

김 한 욱 / JDC 이사장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태어나 스무 살에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도 행정복지사를 끝으로 2007년 40년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11남매 중 10번째인데,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매일 아침 전보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친구 집에 얹혀살다 방세가 없어서 청소해주면서 학교를 다닐 정도였다. 실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대신 9급 공무원으로 일찍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만나기가 싫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즈음 사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이 좋아서 32살에 사무원으로 승진했다. 온갖 고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꿈 때문이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안 된다, 어렵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13억 중국시장을 주목한다

국토교통부 산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현재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조성 등 6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만의 천혜의 관광자원에 더해 일차리, 즐거거리, 먹을거리가 잘 어우러진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JDC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중 해외투자에 의해 건축공사가 시작된 첫 사례이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서구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다.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 가운데 한국이 있다. 그리고 지도를 거꾸로 뒤집으면 태평양을 지나는 길목의 정점에 제주가 있다.

제주는 1105년 고려 숙종 때 탐라국이 일개의 군으로 편입되면서 변방의 섬읍과 한의 역사가 시작됐다. 고려 시대에 몽고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100년 가까이 통치했다.



“제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남을 존중할 줄 모른다.

그리고 남의 고난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잡을 수 없다’.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에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그 이유였다.

1972년에 ‘관광’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문관광단지가 만들어졌다. 1985년에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만들고 3개 관광단지 27개 개발지구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제주도 개발계획의 이면에는 문제가 많았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중앙하향식 개발이었다. 도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됐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다보니 지역자본에서도 제외됐다. 개발 이익은 모두 육지로 유출됐다. 1998년 이후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중국이 1국가 1체제로 간다면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여론이 일었다. 지정학적인 이점과 호텔과 골프장 등 휴양시설이 많은 점,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특별한 법령과 제도가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된 것이 국제자유도시다.

폐쇄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돼

21세기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폐쇄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로마는 길을 뚫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리장성을 쌓은 중국은 3대 도 못가서 망했지만 로마는 1000년을 갔다. 개방과 폐쇄의 차이다. 남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해적, 마약, 범죄가 들끓던 싱가포르는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했다. 싱가포르라는 타코난 지도자 덕분에 오늘에 이르렀다. 반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필리핀은 주저앉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가 구두를 3000켄데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나라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남을 존중할 줄 모른다. 그리고 남의 고난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Only One한 꿈을

오 종 철 / 소통테이너

3백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1996년 SBS 공채 개그맨이 됐다. 신인 개그맨으로 방송생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듬해 IMF가 터졌다. SBS는 국민 정서를 이유로 모든 코미디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졸지에 백수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3개 방송사를 통틀어 공채 개그맨이 1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40여명 정도만 조명을 받는다. 매주 월요일이면 개그 무대에 서고 싶은 개그맨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진짜 웃기는 게그라도 이를 지켜보는 다른 개그맨들은 금세 표정이 굳는다. 자리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아도 무대에 바로 서기는 어렵다. 담당 PD가 따로 불러 아이디어만 주면 안 되느냐고 제안하기도 한다.

안 웃기던 개그맨 소통테이너 변신 개그맨으로선 무명에 가깝지만 아침 방송을 15년째 하고 있다. 주위에서 ‘너는 개그맨이니 개그로 성공해라’고 격려한다. 그래서 무대에 서는 40명의 개그맨 중에 한 명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그러나 개그맨으로 성공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개그맨이 아닌 난만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었다.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해 순서를 바꿨다. 개그맨 오종철이 아니라 오종철이 할 수 있는 개그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다. 개그맨은 남을 웃기는 직업이지만 세상에 웃을 일을 만드는 것 또한 개그맨의 몫이란 걸 깨달았다. 바로 ‘소통테이너’라는 다섯 글자를 브랜드로 만들었다. 요즘의 청춘들도 마찬가지다. 무슨 자격증, 무슨 점수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한다. 내가 남들보다 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하지 않고 스펙만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개그맨으로만 일을 했을 땐 먹고 사는 길은 방송뿐이라고 생각했다. 방송이 없으면 집에서 놀



“‘A 회사의 수습사원 홍길동’

이라고 생각하면 수습사원의

일만 한다. 반면에 ‘수습사원

홍길동의 회사 A’ 라면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이 생긴다”

있다. 이제는 하는 일이 달라졌다. ‘소통테이너’로 영역을 넓힌 다음에는 생계유지는 물론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 15년째 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얼마 전 SBS에서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이 방송에서 A4용지 27장 분량을 생으로 내레이션을 한다. 15년을 숙련시켜서 가능한 거다. 난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방송국들이 하루아침에 출연자들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자리를 바꿔버린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캐스팅하면 어떠한 생각에 토코스를 만들었다. 오종철의 특소라는 브랜드를 따로 만들었다. 기업을 찾아다니며 여러 말 물어볼었다. 달마다 5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원복 체제다.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등 톱스타들이 각자의 라인을 출연시키곤 했다. 하지만 최근의 방송 프로그램들은 다르다. ‘진짜 사

나이’, ‘아빠 어디가’ 등 한 명의 톱스타가 없어도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다. 세상이 변했다는 증거다.

직장에서 운리 원이 되는 방법은 바로 사장처럼 일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장처럼 일하는 건가요? 진짜 사장처럼 회사의 매출 구조를 알일이 파악하고, 직원 월급 줄 걱정을 하면 사장처럼 일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의 본질은 아니다. 회사를 ‘나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회사나 직책을 당신의 이름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즉, 사장처럼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걸 것이다. 걸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A 회사의 수습사원 홍길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습사원의 일만 하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수습사원 홍길동의 회사 A’라고 생각해보자. 자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이 뭔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자리는 직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자부심이 결정하기 마련이다.

‘남부 원’은 갔다. ‘온리 원’이 대세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 ‘남부 원’의 세계에서는 내가 들어 가면 누군가 자리를 내줘야하지만 ‘온리 원’은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을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을 좇다보니 자연스레 다른 이를 돕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개최하고 있는 ‘모발 나눔 콘서트’의 수익금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세우는 데 쓰이고 있다. 개당 2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벌써 48개나 제작했다. 세상에 없던 가치가 만들어졌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연봉이 얼마냐?’고 묻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세상에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냐’고 물을 것이다.

연구인력 확보 등 ‘과감한 투자’ 통해 집중 육성을

학술기고 지역학으로서 제주학과 탐라문화연구소의 역할



김 동 전
사학과 교수

왜 제주학인가

지방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학문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주의 정체성을 찾고, 제주 지역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제주에 설립되어 있는 ‘제주대학교’의 몫이다. 서울이나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 그 책임과 의무를 떠넘길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 발전방향을 이론적·실천적 논리로 찾고자 하는 지역학이 대두하고 있다. 즉, 강원학, 경기학, 대구경북학, 대전학, 부산학, 서울학, 영남학, 인천학, 전북학, 충북학, 충청학, 호남학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지역적으로 보다 하위 단위의 강릉학, 경주학, 안동학, 안양학, 원주학, 전주학, 춘천학도 거론된다. 제주학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제주학은 다른 지역보다 남다른 지역학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주의 문화는 누가 보더라도 독특한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소위 문화적으로 볼 때,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속의 또 다른 한국’이라 불리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둘째, 지역의 범주가 다른 지역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제주는 섬이라는 요소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불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주는 한국의 3,300여 개 섬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섬일 뿐만 아니라, 크기면에서도 제일 큰 ‘섬의 만형’이다.

셋째, 고대 제주에는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국가가 천 여 년간 존재하였고, 북방문화와 남방 해양문화가 교차하는 문화적 경계지역에 속한다. 나아가 한·중·일의 각 수도를 연결하는 배세도(배이징, 서울, 도쿄) 라인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해양문화의 허브라 할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학문이 성립되는 20세기 전반부터 일본인 학자뿐만 아니라 국내학자들에 의하여 제주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제주인들의 삶의 양식과 역사문화 발전상을 이해하고, 제주

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미래 제주사회의 발전을 학문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분석하는 ‘제주학’ 성립의 기초를 형성해 온 것이다.

탐라문화연구소의 제주학 연구 성과

제주학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제주대학교의 노력은 1967년 탐라문화연구소의 전신인 제주대학 부설 ‘제주도문재연구소’ 설립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제주학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소의 명칭은 1975년 6월에 ‘제주도문화연구소’로 개정되었고, 1976년 6월에는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탐라문화연구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립 46년이라는 연구소의 역사는 다른 지역의 대학연구소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그간 연구소의 제주학 연구 성과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지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하였다. 『제주설화집성』, 『탐라록』, 『탐라지초본』, 『제주속오군적부』, 『제주대정현덕수리호적중조』 등 27권을 출간하여 제주학 연구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둘째, 제주학 관련 학술 총서로 『제주도고문서연구』, 『제주도 마을이름연구』,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연구』, 『제주예술의 사회사』,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연구』 등 14권을 간행하였다.

셋째, 1982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탐라문화』(1~43호) 학술지가 2008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등재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학술지로는 유일하면서도 그 위상은 매우 높다.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를 비롯하여 제주학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대들이 『탐라문화』 학술지를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주어졌 것이다.

넷째, 부산대 한국학연구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 국내 5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연합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한국학연구소, 일본 류큐대학 인문사회과학 연구과, 야마가타대학, 중국 운남민족대학 운남성민족연구소, 대만 국립대북대학 역사학과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46년 역사의 탐라문화연구소는 『탐라문화』 학술지와 14권의 학술총서, 27권의 자료집 등을 간행해 제주학 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탐라문화연구소의 역할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도내 유일의 국립대학 연구기관으로서 제주학 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탐라문화를 비롯한 제주학 연구기관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제주대학교에 집적된 인문사회, 자연과학, 해양 분야 등 제주학 연구 전문가와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학문융합적 방향을 추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내외의 제주학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에 연구소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대학의 궁극적 목표가 ‘연구와 교육’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제주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집적시키고, 제주학 연구 인력 양성에 연구소가 기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제주대학교의 특성화 분야인 관광, 아열대, 해양 분야 등 제주지역의 문화산업도 탐라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미래 창조적 산업 발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연구소는 자체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학교 당국이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한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 ‘태평양’, ‘신화와 곳’, ‘생태인문학’ 등 창의적 연구아젠다를 찾아내어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인문한국학 사업단 진입을 목표로 연구소 창립 당시 연구자들이 가졌던 초심의 심정으로 돌아가 의기투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탐라문화 등 제주학 대중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학입문, 제주의 돌, 제주의 바람, 제주의 여성 등 일반대중서를 발간하고, 제주학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시민강좌의 운영을 통한 연구소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2017년 연구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50년사 발간 등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연구소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몇 가지 제언

대학 당국은 연구소의 형평적 지원에서 벗어나 탐라문화연구소의 발전이 곧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임을 인식하고 대학의 인문사회분야 특성화연구소로 집중 육성하였으면 한다. 특히 어렵게 이루어낸 탐라문화연구소의 등재학술지가 선정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연구소의 재도약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은 탐라문화연구소보다 20여 년 늦게 출발하였지만, 총장 직속기관, 원장의 학부회의 참여 등 대학의 특성화전략에 힘입어 2012년 교수신문이 평가한 대학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국립대학 연구소에 전임교수가 배정된 대학은 전남대의 호남학연구원, 부산대의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각 1명이다. 연구소를 탐라문화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총장 직속기관으로의 전환, 전임교수 배정이 어렵다면 탐라문화연구소 발전기금을 적극 유치하여 기금교수나 연구교수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도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연구는 곧 미래 제주사회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주학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학 진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의 관점에서 제주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보편적 시각의 정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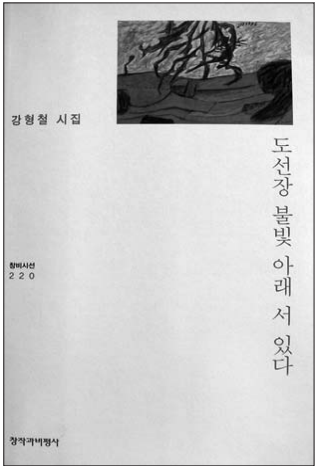
권하고 싶은 책

‘국밥’ 보다는 더 따스한 온기로 마음을 충일게 해주는 감동과 울림

시를 ‘국밥’에 견준 어느 시인의 표현에 공감한다. 따뜻한 국밥을 생각해 보라. 국밥은 비싸지 않아 괜찮고,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 좋다. 추운 겨울이 제격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인심을 녹여준다. 국밥만으로 공허하다면 소주를 벗하여 생활이나 인생 이야기로 핏대가 드러나게 열을 올려도 좋다.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했으니 다들 일 없다. 일러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웅돈이라도 몇 푼 쥐어주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행복하다. 국밥 한 그릇이 주는 행복이 이와 같을진대 마음에 드는 시나 시집은 말해 무엇하랴. 시는 우리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며, 그 울림은 가슴에 오래 남는다. 그대 일주일에 시집 한 권은 읽어야지 하지만 생각뿐, 잘 실행되지 않는다. 올해는 90년 만의 불벌터위라, “펜벤틱 나뭇가지 아난다.”(된별에 나다니지 않는다.)는 말에 집과 연구실을 오가며 원고 작업에 열중했다. 틈틈이 음악을 듣고, 시집도 여남은 권 읽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강형철의 『도선장 불빛 아래 서 있다』이다. 제목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느낌에서 구입한 시집이다.

개인적 시 읽기 습관대로 ‘시인의 말’을 읽고, 첫 번째 작품인 「아트막한 사랑」을 읽는다. 왜 ‘낮은 사랑’이 아니라 ‘아트막한 사랑’일까 생각하며 마지막 시로 훌쩍 뛰었다. 첫째와 마지막은 상징성, 갈무리라는 점 때문에 대개는 시인 자신이 아끼는 시를 배치하기도 하니 그렇게 읽는 버릇이 생겼다. 다음에 소개하는 「아버님의 사랑말씀 6」이 시집 마지막을 장식한 시인데 그게 덜컥 걸린다. 시를 읽으며 흐릿한 시야 때문에 돋보기를 벗어보기는 이 시가 처음이다.

너 이놈은 자식 앉아봐 아버지는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면서 말씀하셨습다 내가 여그도 못살고 저그도 못살고 오막살이 이 찌그러진 집 한칸 지니고 사느니 녀름 집 직간 청소하고 돈 십오만원 받아갖고 사느니 뭐 집을 잡혀야 쓰갓다고 아나 여기 있다 문서하고 도장 있게 니 맘대로 허바라 이순 싸가지없는 새까 아 내가 언제 너더러 웅돈 환포 달라고 했나 돈을 꿔달라고 했나 그저 맺날 안 남은 거 숨이나 갈딱갈딱 쉬고 사느니 왜 날 못살게 구느냐 말여 왜! 왜! 아버지 지가 오죽



강형철 시집
『도선장 불빛 아래 서 있다』

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번만 어떻게…… 뭐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아 그렇게 여가 있단 말여 니 맘대로 살아먹든지 고 아먹든지 허란 말여 예라 이 순……// 그날 은행에 가서 손도장을 눌러 본인 확인란을 채우고 돌아오는 길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막걸리 한잔 먹고 한 말은 잊어버려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애상바쳐 죽갓다 니가 어떻게 돈을 좀 애겨 쓰고 무서운 줄 알라고 한 소랑게……

‘말씀하셨습니다’에 초점을 맞춰 한번 더 읽어 보라. 1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은행 대출 문제로 오가는 격한 대화로, 「크로이저 소나타」를 듣는 기분이다. 감정의 고조와 갑작함에 느낌표와 줄임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2연에서는 “손도장을 눌러 본인확인란을 채우고 돌아오는 길”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온점이 찍혀 있다. 온점에 호흡이 멈춰 있는 동안 감상이 교차한다. 시인이 쳐 놓은 거미줄에 걸려 가슴이 미어진다. 마음을 정리하고 한참 후에 하시는 아버님의 사랑 말씀, “아침에 막걸리 한잔 먹고 한 말은 잊어버려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애상바쳐 죽갓다 니가 어떻게 돈을 좀 애겨 쓰고 무서운 줄 알라고 한 소랑게……”

시를 읽으며 생각한다. 우리 모두 시를 가까이하며 자연을, 사람을, 생활을 좀더 깊게 성찰해 봤으면 한다. 시는 ‘국밥’ 보다는 더 따스한 온기로 우리의 차갑고 낯고 허기진 마음을 녹이고 높이고 그래서 충일하게 해 줄 것이다.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

경쟁에 갇힌 시대일수록 청년들의 자아찾기 중요… 실천없는 계획은 소용없어

강연초록 김경호 동문 특강 ‘차별화를 위한 선택, ONLY ONE!’

김경호(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장, 사회학과 79학번) 동문 특강이 지난 4일 오후 6시 인문대학 1호관에서 ‘차별화를 위한 선택, ONLY ONE!’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강연 요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계획은 세울 수 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획을 실행할 만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청춘이다. 하지만 20대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열정이 없다면 노인과 다를 바 없다. 중요한 것은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피를 뿜기 시작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죽는가’라는 실험을 제안받은 사형수가 있다. 이 실험은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진행됐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30분이 지나자 그는 사망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은 주사만 꼽은채 피를 뿜지 않았다. 다만 사형수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핏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사형수의 ‘피가 부족해 죽고 말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스스로를 죽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다보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도 마음먹

은 대로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특강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다. 알게 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이 단순히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작정 공부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 앞만 보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쯤을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체계적인 계획 세우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자세 절실

차별화 전략 통해 위기를 뚫고 일어설 경쟁력 갖춰야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의 의지로서 무한도전에 나서길

어떤 능부가 수확철을 맞아 벼를 베고 있었다. 능부는 열심히 벼를 베고 있었지만, 다른 논에 능부들은 논고 있었다. 일을 하지 않은 능부들을 보며 그 능부는 자신이 가장 많은 벼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논고 있던 능부가 더 많은 벼를 베어냈다. 다른 능부들은 놀면서도 낫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즉,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수확

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 우선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한다.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효율을 위해 두 번 짚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커다란 자루에 오백원짜리를 잔뜩 넣고 솟았을 때 모든 동전의 면이 학이 보일 확률이다. 이런 무모한 확률에 인생을 거는 것은 무모하다. 운이란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무작정 로또의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면 운이 다가와도 잡지 못할 것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닌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평가를 얻는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목숨 걸 듯이 준비한다. 하지만 왜 공부하느냐하는 질문

에는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너무 살벌해서 이렇게 해야할 것 같다”는 것이 그 학생들의 대답이다.

스펙에 목숨 거는 학생들은 그렇게 엄청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고하고 취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스펙이라는 것은 제품 설명서에 불과하다. 아무리 제품설명서를 잘 쌓았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

위기라는 글자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위기를 핑계로 삼지 말아라. 오히려 위기를 노력야만 한다. Only one, 즉 차별화 전략을 통해 위기를 뚫고 일어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편안할 때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위태로운 때를 생각하며 대비하고, 그 대비를 통해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만 한다. 동족사 이즉생(同即死 異即生), 살아남기 위해서는 달라야 한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도전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모든 것은 선택을 통해 시작된다.

가슴 뛰는 삶을 위해서는 학업을 즐겨야 한다. 즉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만 한다. 진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



김경호 동문은 4일 후배들에게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그에 걸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태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라. ‘A는 1, B는 2, C는 3... Z 26’ 같은 방식으로 A부터 Z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했을 때, 이 공식으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100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돈도 행운도 아닌 태도(Attitude)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인생을 0점 또는 100점으로 만들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또 다른 100점 중 하나가 스트레스(Stress)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지루하

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사회로 진출해 성공하는 비결은 변화에 반응하는 자세에 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그 물의 온도를 높인다면 개구리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져 죽는다. 하지만 이미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는다면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 생존한다.

이런 현상을 빚어낸 만든 말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다. 비전상실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처럼 변화의 실재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무기력하게 죽고 말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어차피 경쟁은 피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인생에 굴곡이 있다. 다만 그 굴곡의 오르막을 길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상어는 부레가 없어서 헤엄치는 것을 멈춘다면 죽는다.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하는 삶을 산다. 어린 상어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헤엄쳐 근육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게 스스로 얻은 강인함이 상어를 바다의 강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환경에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동정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의지와 뜻,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라.

정리=박소연 기자

‘생태·평화’를 기본 이념으로 비전 재정립해야

기고 무늬만 ‘특별자치’ 제주특별법



박 외 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제주의 미래는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된다. 그러나 이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목적 중 하나인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그 지향성이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제주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모델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시장개입을 억제하고 상품·서비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이윤과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눈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라는 화려한 구호를 뒤로 하면 사회공공성은 더욱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실험대상으로,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들만 난무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무너지는 사회공공성

근본적으로는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행정계층분제 등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선택권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법률’로 원천봉쇄해 놓고 있어 ‘무늬’만 자치도에 그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가 최근 제주사회의 큰 쟁점이 되고 있지만 김태환 도정에 이어 우근민 도정 역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체 폐지나 법률적으로도 생활정치에 토대가 상실됐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선 도지사 1인 독점 체제로 인해 도민의 눈치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쫓겨가는 강요당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제주는 실험용 대상으로 전락해하고 있다. 권력 차원에서 전국적인 정책적용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제주를 ‘정책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와 병원을 ‘주식회사’

로 만들겠다는 것인 영리학교, 영리병원 문제다. 이미 도입된 국제학교의 경우 1년 수업료만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교육의 불평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은 전국화를 위한 잘못된 ‘테스트 베드’에 불과하다. 선점효과도 오래 가지 못할 처지다. 이미 외국인학교는 제주에서 시작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겨갔다. 외국영리병원 허용은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대차본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제주만이 아닌 전국화되어 가고 있다.

일자리가 화두인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 우선고용제’마저 폐지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익의 환원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정은 권한만 이양됐을 뿐 이에 따르는 재정 권한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반쪽 이익이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기존 5



지난 2010년 3월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된 제주사회포럼조직위가 제주사회포럼2010 ‘상상하라! 다른 제주는 가능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불분명하다. 세계평화의 섬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하듯 평화시설 중심으로 개념화되거나 이를 추진하는 흐름 역시 기존 관변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모순된

‘국제자유도시’ 화려한 구호 뒤 사회공공성 후퇴 주민들 의사선택권 없는 말로만 ‘특별자치도’ 자치실종의 개발담론 더이상 묵과해선 안돼

개 법인격을 갖춘 지방정부에서 이제야 하나의 지방정부라는 관점이 강해 예산 배정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 국제세의 지방세 이양은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내용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매해 제도개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비전 제주사회 재설계 전략 필요

국제자유도시를 꿈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개발담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제도개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라는 철 지난 슬로건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생태, 평화를 기본 이념으로 미래비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제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비전은 이미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교적 잘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자유도시보다 훨씬 제주다운 비전일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제주의 현실에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구체적인 평화의 섬 전략을 수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4·3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나아가 제주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언어로서도 평화의 섬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태사회로의 지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제주는 개발광풍이 여전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정책기조를 밝혔지만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제주도민은 없어 보인다.

시민사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중심 체계인 현행 법률을 아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도시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개발총량제 도입과 보존을 위한 GIS등급 재설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개발을 위해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매입해 제공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중단할 수 없다면 개발과 환경의 형평성 논리에서 전환경농업이나 환경분야에서도 토지비축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경제구조의 혁신도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면서 풀뿌리 경제체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역외유출 규모가 한 해 5조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제주경제의 자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다움을 잃지 않아야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연구, 실천하는 도시로 육성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전면화할 수 있는 시범도시를 만들어 내 협동과 연대의 경제로 전환시켜 나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소득보전형 1차 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업을 전면화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실제 FTA 위기 속에 제주농업은 단순 피해 예방 차원의 아닌 미래 산업 전략, 생명 산업 전략으로써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핵심 정책은 생산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1차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울러 구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 농업의 전면화로 생태환경사회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전면적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대자본 중심의 관광, 숫자중심인 양적 관광정책이 아닌 생태와 어울리는 관광, 지역풀뿌리 경제와 순환하는 관광정책도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제주는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인권과 자유와 평화 등 인간적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사회,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건지하고 다문화화를 포용하는 국제성이 필요하다. 이제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15> 간드락 소극장 지킴이 오순희씨

“아름다운 영혼이 살기 위해 아름다운 문화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섬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아라동에 위치한 간드락 소극장에 찍힌 문구다. 간드락 소극장은 도민들에게 연극, 인디밴드 공연, 독립영화 상영, 문화 교실 등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 조그만 곳에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가 싹 틔우고 있다. 지난 6월 ‘간드락 소극장 지킴이’ 오순희(47) 대표를 만났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동생 오별 감독의 테러J(문화예술창작집단 자파리연구소의 전신) 활동을 도와주다 2009년부터 간드락 소극장 운영에 전념했다.

“여고생 시절 전시나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돌아보니 그런 공간들이 사라졌죠. 제주도에선 왜 문화 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다 동생의 연극 연습을 보게 됐어요. 제주도를 담은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 깊게 감명을 받았고 일을 돕게 됐어요.”

간드락 소극 ‘지슬’ 오별 감독 돕다 소극장 운영장은 2007년 ‘할머니의 낚은 창고’라는 작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많이 알려졌다. 가족 단위로 연극 공연을 보러 오는 등 제주도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됐다.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간드락 소극장에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가족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됐어요.”

소극장을 만들었을 때 많은 이가 무모하고 말했다. 하지만 개관 후 3년이 지나고 가족단위 관객처럼 색다른 관객 문화를 만들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다른 소극장이 생기는 계기가 되는 등 제주도내 소극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신을 극장 지킴이라고 소개한 오순희 대표는 제주문화 지킴이다. 지금은 동생뿐만 아니라 도내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손수 탐과 노력으로 만든 공간인데 공연이 없어 놀릴 때가 많았어요. 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제주도에선 설 공간이 없어 공간을 빌려줬죠. 마음아픈 인디밴드 공연이든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려 했어요.” 그는 예비 문화인인 중·고등학생들의 문화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의 예술과 문화창작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예술도 교육과 경험이 중요해요. 하지만 진학에 치우치다보니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한 경험은 노래방이나 영화를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한정적인 문화생활을 하죠. 어릴 적부터 진로가 아닌 정서적인 가치관을

을 높여주는 경험이 중요해요.”

오 대표는 최근 제주도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

주해 제주문화예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한다. 또 그는 문화이민지라 불리는 이들이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과 어울려 지길 바랐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 제주도에서 자신을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보면 색다른 생각하면서 놀랍니다. 하지만 한 팔짝 뒤에서 보면 그들의 작품과 제주도 문화가 서로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표현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대표는 청년들이 기획한 문화 행사들을 한방주의라며 아쉬워했다.

“연예인들이 한 두 팀 오는 것과 다수 프로그램을 연예인으로 기획하는 것은 달라요. 본인들이 해본 바가 없어 축제가 왜 즐거워야 하고 돈 없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축제라는 것을 몰라요.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하고 향유하는 사람들도 축제를 즐겨줘야 해요.”

강경태 기자

참여의 위기 극복해야... 선거문화 개선, 법제 선진화 필요

‘한국 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특강

이종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한국 선거의 변화와 지속성’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특강은 정치외교학과 등의 학생들로 구성된 ‘2013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창설 50주년을 맞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정치관계법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종우 중앙선거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30여 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몸을 담은 선거관리 전문가로서 중앙선거관위 기획조정실장, 법제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자로 중앙선거관위 상임위원(대통령 임명)으로 취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방안’,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민주화 이후 선거의 변모양상과 제도개혁’ 등 다수 있다.

다음은 강연 요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정치체제가 도입됐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수용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제도이다. 1970년 포르투갈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도입했다. 1980년대에는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구권이 붕괴됐다. 그리고 최근 2010년 전후로 중동의 자스민 혁명으로 이 지역의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가 민주주의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꽃피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도입해 왔는가.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해방과 동시에 미국 등 서구사회로부터 민주주의를 직수입했다. 많은 피와 탐과 노력의 결실로 생겨해 왔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도입 이후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민주선거제도가 광복상당하며 성장해왔다는 것이다. 1948년 5월 11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처음 도입돼 민주선거를 선보였다. 이때 당시 유엔 감시단이 파견된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후

발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선거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기 위해 연수를 온다. 그만큼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눈에 띄게 발전해 왔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의 선거현황이 열풍을 일으키고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처음 민주선거를 도입할 당시 한 외신 기자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첫 선거에 유엔 감시단 파견... 이젠 선거 배우러 온다 외국 경제주간지서 ‘우수한 민주주의’ 평가 받아 노르웨이·스웨덴 등 선거제도·구조 따라 발전해야

장미꽃이 필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불과 65년 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자매지인 EIU(인텔리전스 유닛)가 평가한 세계민주주의 정도평가에서 2012년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투표하고 나서 가만히 결

과를 기다리는 것만이 공명선거가 아니고 국민의 의사와 선거 결과를 일치시키는 것이 공명선거이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선관위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1989년 동해시 재선거를 기점으로 선거관리모델이 변했다. 선거관리모델도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모습을 보였다. 이전에는 행정관리형

선거관리모델이었다. 이는 공정성시비 차단, 정치행위 불관여 등 절차사무관리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선거의 공정성저해 사안 적국 차단, 준법정책선거 지향, 정치관계법제 선진화 주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조치권 행사에 나서는 등 선거의 민주적 가치를 적극실현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정치발전형 모델로 정한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선거문화개선, 법제선진화 등을 통해 발전됐다. 1987년 6.29



이 종 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1989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1991년에는 지방자치가 부활됨에 따라 불법선거가 다시 활개 칠 움직임이 보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도 타락선거, 금권선거가 재연됐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고 1년여 후인 1994년 3월 26일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됐다. 민주화 물결과 불법, 탈법선거 양상의 양면성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단속의지만으로 선거문화 개선에 한계를 절감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게 됐다.

김병지 기자

교수신문

변혁의 시기에 대학 구성원 모두가 변해야



라공우
무역학과 교수

“
정부기능도 시대에 따라 변화듯
대학도 변해야 한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와 봉사,
직원은 행정 서비스 제고,
학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대학이 설립된 것은 대부분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에 전 문학교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적 으로 보면 이제 100년을 조금넘었다. 그 리고 우리나라에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일본 정부가 1924년에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서울대 학교 전신)뿐이었다.

광복 후 전문학교가 모두 대학으로 승 격하였고, 해방후에 많은 국립대학과 사 립대학이 전국각지에 설립되었다. 특히 대학설립이 자율화된 DJ정부와 YS정 부를 거쳐 현재 대학의 수와 정원은 신 입생의 지원자수보다 대학정원이 많아 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각종 매체에서 대학 의 신입생유치를 위한 광고까지 하는 현 실이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학자금 재정 지원 제한대학과 부실대학을 발표하기 에 이르렀다.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은 순수학 문을 연구하고 정의와 진리를 부르짖던 ‘상아탑’이라고 불리었다. 그럼 요즘의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의 총장은 기업 가처럼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교수들은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장으로 내몰리고,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영어점수높이기, 자격증취득 등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실이다.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대학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대학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 는 중요한 지표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다. 국내 대학들 간에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원이라는 것도 공통적인 점이다.

최근 일간지에서 대학평가 결과를 특 별기획으로 다룰 정도이며, 전국 140여 개 4년제 대학의 주요 학과를 대상으로 한 대학평가는 교육환경, 교수역량, 재 정지원, 교육효과 등 4개 부문에서 지표 부를 개발해 적용했다고 한다. 교육환경 부문에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 수역량에서는 전임교원의 1인당 논문실 적 등을 지표로 다루었다.

재정지원 영역에서는 학생 1인당 장 학금, 전임교원 1인당 자체연구비를, 교 육효과에서는 졸업생 순수 취업률과 재 학생의 중도 탈락률 등의 지표를 개발했 다.

또한 정부(교육부)에서도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에게 차등 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대학의 순수취업률은 대학평가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대학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 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민간에 의존하 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는 것이 바로 대학이 상업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상업화는 대학을 장사 잡패는 학과로 통폐합하고, 안패는 학과를 구조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대학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사 랑대학의 오퍼들은 생각한다. 제가 근무 하던 대학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아 왔 다. 이것이 최근에 대학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며, 수익구조를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의 수강인 원이 많은 강좌개설, 학점은행제 개설, 전공심화과정, 외부 연구비 유치, 발전 기금 유치 등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 대학은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 아카데미와 같은 순수교육기관이어야 할까? 아니면 기술연구소, 지식노동자 의 훈련원, 문화교양의 집산지, 상업성 을 가진 기업과 같은 것일까? 필자는 생 각해 본다. 정부의 기능도 시대에 따라 변하듯이 대학도 변해야 한다. 즉 대학 구성원 모두가 변화해야한다. 교수는 교 육과 연구와 봉사, 직원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해 능률 향상, 학생은 실용학 문과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친 상업 화는 반대한다.

독자기고

외국인 학생에게 드리는 제언



왕정정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비지땀 흐르는 무더 운 여름이 한결을 물러 간 지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4년이 지났 고 대학원생으로서 제 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다.

처음 외국인 학생으 로 대한민국 ‘제주대학 교’를 지냈을 때에는 한국말이라고는 ‘안녕하 세요’ 밖에 모르는 수준이었고, 막상 한국에서 유 학생활동을 시작하니 나는 그저 한국말을 잘 못하 는 외국인 유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생 활은 너무나 힘들었다.

제주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 들은 한국어 공부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나 도 그랬는데, 특히 받침은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어휘와 문장구조도 중국어와 달랐고 억양도 적 응하기 힘들었다.

주위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과 다른 문화적 차이로 몇몇 외국인 유학생은 같은 국적의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본인 국적의 말만 사용하여, 몇 년을 제주대학교에서 수학하 지만,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유학생들을 본 적도

고, 꾸준히 한국어 문법공부를 하는 것이 유학생 여러분의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학습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알찬 대학 생활 보내기일 것이다. 처음 제주대학교에 들어 오면 무엇보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은 학 문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흥미 있어 하 는 분야를 선택하여 심화교육을 받는 것이 본인 의 취향에도 맞고 재미있는 수업을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이 처음 학교수업에 참여하면 당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업방식은 비스할지 모르나 교수님의 말씀은 빠르고 우리 들은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학생일 뿐이니 당연 한 결과이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 하지 말고 진취 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수업적응과 더불어 많은 한국친구들을 사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대학 수업은 조 별수업과, 발표수업이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 에 조별 팀 속해 다수의 한국학생들과 함께 수업 과 발표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팀별 활동을 하면 서 본인이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학생들이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 으면 좋겠다.

한국학생과 더불어 나도 같은 교육을 받는 학 생으로서 팀원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면 여러분은 조금 더 나은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시사키워드

내란음모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이 의원은 RO(혁명조 직, 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군사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총기확보와 철도 및 통신시설 등 국가시설 파괴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녹취록 속 RO 모임에서 이 의 원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란죄가 적용된다.

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형법상 내란 음모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 음모는 국토 참정이나 국헌 문란 등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폭 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 실행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 의원에게 여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체해 우리나라 에 항적한 범죄다. 하지만 적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 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추징금

전두환 전 대통령(82)이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기로 10일 발표했다. 앞선 4일 노태 우 전 대통령이 미납추징금을 모두 납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 이 후 1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징금은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을 대신해 받는 돈을 말한다. 이 때 빼앗은 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 노역이 불가능하고 집행 시효인 3년이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전까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 몰수특별법)이 통과된 뒤 검찰 은 가족과 친척까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펼쳤다.

돌아르방



김동현
여론사회부장

교육부가 내 년부터 교육역 량강화사업을 폐지하고 가칭 ‘특성화 분야 육성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는 ‘특성화 육 성사업’이 대학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사업 을 통해 등록금 인하와 지방대학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이 과 연 교육부가 말하는 대로 등록금 인하와 지방대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등 록금 인하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대학의 재정이 안정화되면 등록금 인하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학의 재정이 없다고 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하 된 적이 별로 없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하지만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 방대의 힘이 약해진 것이 대학의 특성화 와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대 학의 힘이 약해진 이유는 90년대 초중반 상당수의 대학이 늘어나고 수도권에 대 한 규제가 풀리면서 입학생들이 수도권 에 위치한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 난데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이 ‘교육 역량강화사업’을 폐지하고 시행한 정책 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 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여건을 토대로 각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받은 사업비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었다. 제주대도 7년 연속 교 육역량강화사업비를 받았고, 이 사업비 는 학습공동체, 교류수학, 취업프로그램 마련 등에 사용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기획평 가과 관계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다른 사업의 예 산으로 쓰거나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 로 예산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 사업은 대학 차원이 아닌 학과나 사업단 차원에서 진행된다. ‘특성화분야 육성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과나 사업 단 차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올해까지 진행됐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은 학교 차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단과대학에 더 지 원을 해줄 수 있었다. 반면에 ‘특성화분 야 육성사업’은 학과나 단과대학에 끌고 루 지원을 해주기가 어렵다.

‘특성화 육성사업’과 관련해 학과나 사업단은 이미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학과에 더 지원해준다는 것은 생명대학, 해양대학, 관광계열의 학 과를 제외한 비(非) ‘특성화’ 학과 및 단

과대학의 약화를 의미한다.

물론 교육부는 ‘특성화 육성사업’외 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1) 사업을 통해 교육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신 규로 추가했다. 하지만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은 우리 대학이 한번도 선정된 적이 없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비해 선 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다.

이런 이유로 ‘특성화 육성사업’이 지 방대학을 살리는 데 부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특성화 육성사업’은 대학의 사 업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은 인재를 키워내고 미래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많은 대학을 허가해 줘 놓 고 이제 와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 학의 사업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불성 설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정적인 측면 보다 대학의 원래 취지였던 인재 양성 기 능에 초점을 맞춰 대학과 관련한 사업들 을 진행해주길 바란다.

JDC대학생아카데미
머뭇거리지 마라, 청춘아

문의 064) 754 - 2306
*제주대 취업전략본부
VOD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b.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09.02 김한욱 JDC 이사장
제주도개발과 환경보존,
우리의 자제

09.03 오종철 소동테이너
OnlyOne한 꿈을 꾼라

09.10 김광연 공모전의 신
불광불굴, 미쳐야 미친다

09.17 유지성 오지레이저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09.24 김영하 작가

10.01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10.22 최중학 서울대 교수
세계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세계

10.29 김봉정 컨설턴트
실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11.05 노광철 짐치독 대표

11.12 손보미 작가
청춘 멘토링,
나만의 기록 만들기

취업을 **Job**아라 < 11 > 제주대 취업률 분석

거점국립대 중 취업률 2위... 의료·교대·수의대 상위 포진

부서별 협조·취업 컨설턴트 활용 효과 거둬

일부 학생들 학교 지원 외면... 적극적 자세 아쉬워

취업률 52.8%. 어떻게 봐야 하나

제주대는 올해 52.8%의 취업률이 나오자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도내 일간지, 인터넷신문에서는 제주대 취업률을 비중 있게 다뤘으며, 대학 본관에도 취업률과 관련된 대형 현수막도 걸었다.

하지만 52.8%의 취업률이 왜 높은 수치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재학생도 있었다. 대학에서도 전국 국립대와 비교를 통해 높은 수치라고 설명을 할 뿐 정확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두 명 중 한 명만 취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낙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도내 언론에서도 제주대 취업률이 낮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제주대와 도내 전문대와 비교를 하면서 매우 낮다고 보도하거나 52.8% 수치만 보고 절반만 취업을 했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취업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나온 취업률은 정부에서 공시하고 있는 취업률이다. 이 취업률은 6월 1일을 산정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졸업생과 올해 2월 졸업생은 올해 6월 1일까지 취업을 해야 취업자로 분류된다. 2012년 8월 졸업생과 2013년 2월 졸업생은 2013년 6월 1일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된다.

또 취업을 했다고 해서 모두 취업률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취업률에 포함된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는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미취업자로 분류된다. 예·체능계열, 인문과학계열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원 강사 등도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미취

업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교사가 됐다 하더라도 산정일 이후 합격했다면 교육부는 이들을 미취업자로 기록한다. 이것이 사범대학의 취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다. 이처럼 취업률 통계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는 요소로 쓰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어서 취업을 공개가 질보다는 양적인 취업률을 올리는 데 기인했다는 의견도 있다.

영농종사자, 산정일 등 취업률 지표 신경 써

그렇다면 제주대는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했을까? 연말이 되면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60% 정도가 취업을 한다. 또 2~3년이 지나면 80~90%의 학생이 일자리를 얻는다. 이는 비단 제주대뿐만 아니라 전국 국립대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올해 국립대 취업률을 보면 제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상반기 때 열린던 공채가 하반기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뀌면서 경제 관련 정책을 보고 채용을 늘리는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상반기에는 많은 수의 학생을 뽑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졌고, 산정일인 6월 1일에 미취업자로 분류됐다.

그런데 타 국립대와 달리 제주대는 5.1%가량 취업률이 증가했다. 이는 부서별 협조, 취업컨설턴트 제도, LINC사업단 협조, 취업동아리 및 HRA 등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점과 학내 모든 기관들의 협조가 큰 몫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통계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지난 9일 취업전용강의실에서 '2014년도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9급)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경을 썼다. 기존에 취업을 했으나 미취업자로 분류된 학생들을 취업자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 산정일 이후 취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공문이나 직접 찾아가 산정일 이전에 취업이 가능하게끔 유도했다. 또 영농종사자들은 영농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취업을 한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농 종사자들에게 일일이 서류를 받아 취업률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간호대학은 취업률이 41.2%였지만 올해 78.6%로 37.4%가 증가했다. 지난해 간호대학은 3개월 인턴 기간이라는 병원의 특성상 취업자 산정 이후에 취업이 된 경우가 많아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각 병원에 취업자 산정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취업자로 처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취업전략본부에는 LINC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의 취업률에 많은 신경을 썼다. LINC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는 많은 지원과 높은 취업률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등에 많은 신경을 썼다. 취업컨설턴트를 타 단과대학보다 2개월 일찍 배정했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전략을 소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과학대학은 5.7%가량 취업률이 증가했다.

도, 일자리 2만개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제주도는 현재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5대 성장 산업 투자, 중소기업 육성, 인재양성,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제주대와 트랙 양성, 해외 글로벌 양성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 관계지는 “청년 일자리 코너를 통해 취업 정보를 소개하며,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

다”고 말했다.

학생-기업간 눈높이 차이 줄여나가야

취업전략본부나 도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대기업이나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도내를 잘 벗어나지 않는 점과 학생과 기업간의 눈높이 차이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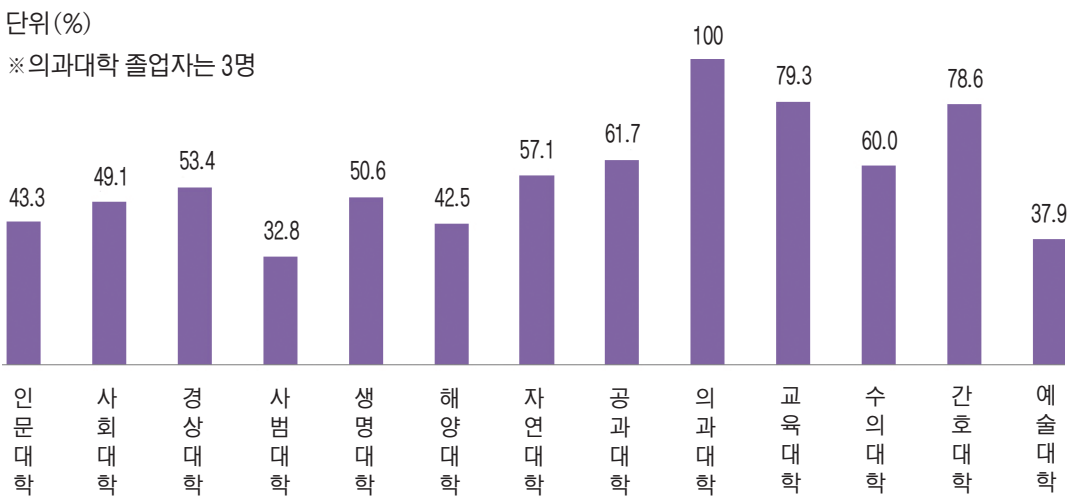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눈높이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으로 지원하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좋은 중소기업도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낮은 임금과 복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20~30%의 일부 학생들이 취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혹은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연락을 하면 끊어버리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수(취업전략본부) 실무관은 “20~30%의 학생들은 학교 차원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취업을 한다”며 “그 외의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도움 자체를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은 “취업은 4학년 때 준비하면 늦다”며 “기본적인 자격증, 어학 성적은 저학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업전략본부에는 취업컨설턴트, 어학연수, 인턴, 취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며 “혼자 준비하기 벅하다면 학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임 본부장은 “앞으로는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2013년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 중 단과대학별로 취업률을 나눴다. 의과대학의 취업률이 제일 높으며 교육대학, 간호대학 순으로 이어졌다.

취업준비생 ‘목표’ 설정 중요... 기업은 경험·역량 지닌 인재 선호

취업전략본부의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통해 자신만의 역량 갖춰야

기고 스펙보다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으로 취업에 승부하라



김문규
취업전략본부
취업지원팀장

2013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9월~11월)가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채용 기준을 기업에 제시했다. 이는 졸업하는 학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학교레벨과 학점, 토익 점수가 채용에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학력, 학교,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해외연수 등을 이력서에 기록하지 않는 회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픈 북으로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취업은 더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취업전략본부에서는 변화하는 채용시장

에 맞추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학교 밖으로 나가서 경험하라

기업이 채용하려는 인재는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경험을 했거나 회사의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이다.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취업하려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사회와 기업을 이해하는 경험을 꼭 하길 바란다. 취업에 가장 힘든 사람은 공부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공부만 해서는 타 대학교 학생들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뉴스에 증권기업 인사팀장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다. 토익점수가 얼마인지,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지, 자격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접때 물어보지 않는다. 다만 지원한 직무를 경험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직무분야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직무적성검사를 통해 잠재력을 따라가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학교와 학과를 선택했다. 그래서 기업은 학생들의 전공을 믿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점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은 적성검사를 통해서 지원자의 잠재력에 맞춰서 채용을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학교성적 커트라인은 B학점(3.0)이었다. 학교에서 수학한 것들을 믿지 않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서 재교육 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직무적성검사는 취업전략본부에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로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역량과 가치를 지녀야 한다

역량은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생각을 명쾌하게 문서에 옮겨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멀티 슬라이드를 만들어 남들을 설득해 가야 한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역량은 ‘기획&문서작성’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채용할 가치가 없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역량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수료증을 취득할 경우 가산점을 얻게 되고 취업하는 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가치라는 것은 지원하는 회사의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생리대와 화장지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유한킴벌리의 경쟁사는 P&G나 LG생활건강이 아니라 ‘비데산업’이다.

전혀 다른 산업에서 적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기업을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인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MP3플레이어, 카메라, 네비게이션, 캠코더, TV기능 등 다양하다. 네비게이션 기능을 사례로 들어보자. 네비게이션을 만들던 회사는 스마트폰에 네비게이션 기능이 내장되는 순간 시장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네비게이션 회사에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비게이션 만드는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제는 CIT(Convergence + IT)경영 시대이다. 기존의 제품과 IT가 결합되어 새로운 성능과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집대와 건강검진기가 결합되는 침대가 만들어 질 것이며, 1리터에 2,000원 하는 기름을 넣고 7km를 달리던 그랜저는 이제 끝장을 맞이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차에 결합해서 자동차가 말을 하고, 음성인식을 통해 말한다면 자동차가 문자를 전송하고, 항공예약과 주식시세를 차에서 확인하는 인공지능형 자동차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역량기반 지원서를 대비하라

학점과 영어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귀 기울이고 지원할 회사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01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역량기반 지원서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기존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항목(성장과정, 장·단점, 지원동기, 미래포부)과는 수준이 다르며 업무중심이거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창시절 팀을 만들어 성과를 냈던 경험과 본인이 수행한 역할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1,000자 이내)

·지원한 직무에 대해 경험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자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800자 이내)

·자사의 제품에 새로운 컨텐츠를 올린다면 어떤 제안을 하겠는가?(1,000자 이내)

·남을 위해 봉사 또는 헌신한 경험을 적고 본인이 얻은 것에 대해 기술하시오.(500자 이내)

역량기반지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중심으로 문항이 주어지고 회사가 제시한 문항에 대해 기업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명쾌하게 작성해야 한다.

학점과 영어점수를 올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원회사를 정하고 직무를 결정할 다음 기업을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 취업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학생취업 지원 강화 나서

제주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며,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역량을 키워가길 바란다. 진로 및 취업에 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취업지원관이나 카운셀링 전문가들과 항상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취업전략본부를 만나고자 한다.

‘그대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대는 꽃을 피우리라’ 반드시 여러분의 계절은 오게 되어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꿈을 펼치시길 바란다.

» 문화단신

문화조형디자인전공 졸업 작품전

제23회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주임교수 오창윤) 졸업 작품전이 12일까지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난 8일부터 열린 이번 작품전 오픈식은 지난 9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오픈식은 금속, 제품디자인, 도자, 섬유 각 파트의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김방희 예술디자인대학장은 “그동안 배우고 느꼈던 것들이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 모든 경험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연씨 등 모바일앱 아이디어 공모전서 수상

김정연씨 등이 전국 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한 ‘2013 대학생 모바일 앱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정연(컴퓨터교육과 3)·김은별(회계학과 4)씨의 ‘올레’ △심해원(정치외교학과 2)·김경완(경영학과 3)씨의 ‘Uni-Smart’ △강현지(건축공학과 3)씨의 ‘나는 너의 비서야’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제주대 총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졌다.

시상식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39개 대학에서 100개 작품이 응모했다.

» 알아들시다

성희룡·성폭력 예방은 이렇게...

◆남성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여성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언어, 행동)를 역행 그대로 받아들이나,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시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삼간다.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삼간다.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한다.

◆여성

△평소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한 결정기준을 갖는다.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노래방이나 비디오파 등)을 조심해야 한다. △성관계 의사에 없는 한 숙박업소 등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아야 한다.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자신감을 기른다.

제주대학교 건강증진센터 성희룡·성폭력 상담부(064-754-2059) 제공